
 <b>국토교통부</b>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	<b>보   도   자   료</b>		
배포일시		2014. 6. 2(월) 총 2매(본문2)		
담당 부서	건축문화경관과	담   당   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김용수, 주무관 심동섭 • ☎ (044)201-3775, 3779, 3783	
보   도   일   시		2014년 6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한옥 등 건축자산, 문화시대의 침병으로 육성!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· 공포 -

-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는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이 6월 3일(화) 공포된다고 밝혔다.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.

### < “건축자산”의 정의 >

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 등록·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,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·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·현대이후의 건축물,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.

ex : 국립극장, 불광동성당, 선유도공원, 가평 폐철도 교각 등

-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·보전하고,
-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□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시·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·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\* 적용하여,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.

\* 건폐율, 높이, 건축선, 조경, 공개공지, 주차장 설치 기준 등

-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, “건축자산 진흥 구역”으로 지정하여 도로, 상·하수도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.

- ③ 또한,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,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\*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,

\* 대수선 범위,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,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
→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

-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,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('15.6.)에 나설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“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용수 사무관(☎ 044-201-37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